

제주의 불교미술과 자복미륵

이경화

문화재청 감정관실

Corresponding Author : ddaccii@hanmail.net

국 문 초 록

제주 불교미술에 대한 관심은 한국미술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편이다. 이 글은 주요 제주 불교미술에 대한 서술과 자복미륵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제주의 불교문화는 고려후기에 흥기하였다. 법화사는 원 황실의 원찰이자 고려의 비보사찰이었다. 묘연사에서는 1296년에 고려 조정에서 내린 불전을 받들어 제주도판을 다시 새겼고 이는 제주의 지식문화를 시사한다. 수정사 청석탑 부재에 새겨진 금강역사상은 고려 후기의 회화로 주목된다. 불탑사 오층석탑은 제주 현무암으로 만들어졌고 14세기 전반경의 체화된 제주불교미술이다.

제주의 조선시대 불교미술에서 자복미륵은 민간신앙화된 미륵의 세 유형을 합성하여 독특한 모습이다. 자복미륵은 원정모와 관복을 착용하였으며, 석인상형 미륵처럼 좌우에 놓여 지역을 살피고 지키며, 튀어나온 눈으로 호위하는 역사(力士)인 신장상형 미륵의 특징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자복미륵은 조선시대 세속화된 미륵의 유형을 분석하는 데에 의미 있는 형식이다.

자복미륵을 이해하는 데에 특기할 불상이 1471년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병립상, 1491년경 옥천 대성사 석불, 광주 십신사지 석불 등이다. 원정모형 보개를 지닌 불상은 조선전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미륵을 조선으로 끌어들이며, 조선을 건설한 신진사대부의 모습에 기인하여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공교롭게 옥천 대성사 석불압상의 조성에 제주목사를 역임하는 육한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복미륵은 그러한 불상들의 지역에 따른 변형에도 불구하고 연결고리를 확인하여 주었다.

주제어 제주불교미술, 자복, 복신미륵,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병립상, 옥천 대성사 석불

투고일자 2018. 06. 30 ● 심사일자 2018. 08. 10 ● 게재확정일자 2018. 09. 11



I. 머리말

전통의 불교문화제는 그 지역의 불교미술이 성숙하고 발전한 정도를 말해줄 것이다. 제주는 고대 탐라국 시기부터 백제를 통해 불교를 접하였을 정황이 유추된다. 다만 무속에 대한 관습이 강하고 유물이 산일되었던 제주의 역사 환경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불교유물은 주로 고려를 넘어오면서부터 볼 수 있다. 한국미술에서 제주 불교미술에 대한 관심은 소외되어 있는 편이다. 이 글은 제주의 주요 불교미술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특히 자복미륵의 특징을 살피고자 하였다.

제주는 역사지형에 의해 고려후기에 더욱 주목되고 불교문화가 흥기하였다. 1231년 몽골의 1차 고려 침략이 시작된 후 30년간의 항전에 이어 1260년에 체결된 강화에 반몽노선을 취한 무신정권이 1270년에 붕괴되자 그 호위군사조직인 삼별초가 고려의 정통 조정을 칭하며 여몽연합군에 저항하고 제주로 후퇴하였다. 삼별초는 1273년에 평정되고, 제주는 원의 직속령이 되었다. 원·명교체기인 고려 말 제주에서 몽골의 목자(牧子)들이 반란을 일으켜 대규모로 토벌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주에서 원나라 불교의 영향력은 거의 상실되어 보인다.

조선시대 국가이념은 유교였으며 전통적으로 무속과 불교는 섞이어 사회변화에 저항하였다. 특히 제주에서 불교는 무속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취한다. 1629년부터 1825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제주도민이 섬을 떠나지 못하는 출륙금지령이 있었고, 고립된 제주에서 불교미술이 화석화되는 것은 당연하여 보인다.

이 글은 제주의 고려·조선시대 범위 내에서 불교유물에 대한 양식적인 접근으로 역사문화적인 해석을 보완하고

자 한다. 공정하게 지면을 할애한 것은 아니며 제주의 독특한 존재에 역점을 두어 자복미륵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주에 있는 10여점의 조선시대 불상은 근대 이후 제주불교의 민족주의 활동과 더불어 호남지역 큰 절의 지원으로 이윤되었기에 여기에서 함께 다루지는 않았다.

II. 제주의 고려시대 사찰과 유물

고려 덕종 3년(1034)에 개경에서 팔관회가 열려 각국의 사신과 상인이 모였고, 탐라국에서는 토산물을 진상하였다¹. 팔관회는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의식으로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복을 비는 국가 최고의 축제이자 교역의 장이었다. 실질적으로 제주는 숙종 10년(1105)에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제되었으며 관리가 파견되었다. 고려후기에 제주의 불교문화는 흥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제주의 사찰은 법화사, 수정사, 존자암, 묘연사, 원당사, 보문사, 서천암, 강림사, 관음사 등이다.² 그 가운데 3대사찰은 법화사(法華寺), 수정사(水精寺), 원당사(元堂寺)를 꼽는다.

1. 법화사

법화사는 원나라 황실의 원찰이자 고려의 비보사찰로서 고려시대 제주의 문화교류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다.³ 고려 원종 10년(1269)부터 충렬왕 5년(1279)까지 중창을 마쳤다는 ‘至元六年己巳始重脩十六年己卯畢’의 명문이 적힌 기와는 원의 직속령이 되기 이전부터 중창되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한다.⁴

주지하듯이 몽골은 1271년에 국호를 원으로 바꾸어 중국의 중원 왕조가 되었다. 제주의 성주(城主)는 1266년

1 『고려사』권 69 「지」 23.

2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韓國의 寺址—현황조사보고서—』下.

3 김일우, 2003, 「고려후기 濟州·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韓國史學報』 15, pp. 61~65.

4 서귀포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2, 『법화사지』.

에 고려에 입조하여 사신과 함께 몽골에 갔다.⁵ 몽골은 제주를 남송 병합과 일본 정벌을 위한 요충지로 보았고, 1268년에 탐라에서 배 1백 척을 건조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화사에는 원나라의 뛰어난 장인이 조성한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이 봉안되고, 발굴에 의하면 왕궁 터에서 볼 수 있는 용문, 운봉문의 막새기와를 비롯한 당시의 화려함이 짐작되는 양질의 청자편이 수습되었다. 다만 그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은 1406년에 명 영락제가 사신 황엄 일행을 보내어 옮겨갔다. 아미타삼존불과 부속 불구를 이운하기 위해 만든 감실이 15개, 각각 감실의 높이와 너비가 7척, 옮기는 데에 수천의 인부가 들었다고 기록한다.⁶

한편, 불상에 관한 개별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지만 혜일선사(慧日禪師)는 법화암을 비롯한 묘련사, 보문사, 서천암 등을 제재로 시를 남겼다.⁷ 그의 활동 시기는 원 간섭기 직전 혹은 이후이다. 혜일을 한림학사와 밀직부사를 지낸 이영(李穎, ?~1277)의 숙부로 보고 그의 제주활동을 원간섭기 직전으로 앞당겨 보기도 한다.⁸ 이영은 천태종풍을 떨친 백련사 4세 진정국사 천책(眞靜國師 天頤, 1206~?)과 교분이 두터웠으며 이러한 지식문화의 경향이 제주와 분리될 수 없을 듯하다. 혜일의 시에 비취진 산사는 신생사찰에서 보기 어려운 서정적인 풍경을 그린다.

2. 묘련사

묘련사에서는 고려 충렬왕 22년(1296)에 『금광명경문구(金光明經文句)』를 거듭 판각하였다. 비록 현재의 소재가

불분명하나 1934년에 편집된 『조계산송광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와 1938년의 『순천송광사장고려판천순판불전(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의 사진으로 확인되어 제주 불교문화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⁹ 이 불전은 1줄 17자인 팔만대장경식 고려본이며 간기에 ‘元貞二年丙寅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彫 幹善瀑布寺住持禪師 安立’이라고 하여, 1296년에 고려국 제주 묘련사가 조정에서 내려준 책을 받들어 제주도판을 다시 새겼고 판각 작업의 총괄은 제주 폭포사 주지 안립선사(安立禪師)라고 기입하였다.

『금광명경문구』는 부처의 상주불멸, 참회멸죄의 가르침이 핵심을 이루는 천태교학의 지침서이다. 천태대사 지의(538~597)가 『금광명경(金光明經, Suvar aprabh sa-stra)』을 해설 주석한 6권의 저술이며 천태5소부(天台五小部) 중의 하나이다.¹⁰ 이 경전은 「사천왕품」에 근거한 밀교 색채의 호국안민을 특징으로 널리 대중화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이 정치적인 힘은 우세하나 고려에는 문화적인 힘이 있었다. 국가의 어려움에 불교의 힘을 빌고자 만들었던 팔만대장경, 원간섭기에 집중된 섬려한 고려불화가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 시기 탐라는 원 직속령과 고려로의 환속이 거듭되는데 1294년에 원이 탐라를 고려에 반환하였고 1300년에 다시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 묘련사 불전을 판각한 때인 1296년은 고려에서 제주목사를 임명하여 파견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국가 지원의 불경 중간(重刊) 본을 출판하였던 제주의 지식문화와 지적교류의 일면을 시사하는 것이다.¹¹ 혜일선사의



묘련사 시로 상상하건대 밤늦도록 구경하면서 생각이 맑아졌던 규모 있는 사찰이었다.¹²

3. 수정사 청석탑

수정사에서는 11~12세기 북송대의 동전과 순청자가 발굴되어 적어도 고려 중기에 창건된 것으로 본다.¹³ 다만 원나라 황후의 소원을 비는 사찰로서 건축이 크고 화려했으며 원대의 불상 2존이 있었다.¹⁴

수정사지에서는 23장의 점판암제 청석탑 부재가 수습되었으며 범자진언과 금강역사상이 표현되어 있다(그림 1). 청석탑은 주로 고려 중기에 집중되어 귀족취향을 반영하는 공예탑이다.¹⁵ 대표적으로 1079년경의 금산사 육각다층 청석탑에 불상, 용문 등이 새겨져 있다. 수정사지 청석탑의 원형을 논의하기 어렵지만 재료의 특성상 부재를 옮겨와 제

주에서 조립하였으며 문비 좌우에 수문신의 역할을 하는 금강역사상이 위치한 부재는 초층 탑신의 면석일 것이다.

금강역사상은 실제 무술동작에 가깝게 자연스러운 편이다. 황룡사 찰주본기의 금강역사상(872년)과 같이 건장하지는 않지만 힘점이 유사하고, 『감지은니불공견색신변진언경』 권13의 사경 권두화(1275년) 신장상의 과장된 표현과 대비된다. 수정사지 청석탑의 금강역사상은 배경묘사가 풍부하지 않지만 고려후기의 회화로 주목된다.

4. 원당사(불탑사) 오층석탑

원당사(元堂寺)에서는 청자편이 발굴되었으며 고려전기부터 있었던 절로 본다.¹⁶ 이후 기황후(1315~1369)의 청으로 중창되었고, 조선중기에 폐하여 승려가 없었으며 1914년에 승려 안 봉려관이 현재의 불탑사로 중건하였다.



그림 1. 수정사지 석탑부재, 고려후기, 26.5X31.0 cm, 국립제주박물관 (사진 국립제주박물관)

11 더불어 유배형식이기는 하나 제주불교의 인적교류를 부기하면 충혜왕이 사부로 칭하던 화승 학선(鶴仙)이 1343년에 제주에 유배 왔다. 학선은 1325년(충숙왕 12년)에 대몽항쟁의 상징이자 대장도감의 본사로 여겨지는 강화 선원사 불전의 동·서벽에 40신중상(四十神衆像)을 그렸던 인물이다(『동문선』권 65, 「선원사비로전단청기(禪源寺毘盧殿丹青記)」).

12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佛宇條, “남해[제주]의 천기가 자주 흐리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저녁은 새로 개여 길손의 마음을 씻는구나, 한 꿈같은 인생은 영화와 쇠하는 것이 있으나, 중추에 달빛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멀리 아득한 데 다다르니 포구(浦口)가 넓고, 비진 그림자가 침침하니 연기 긴 대숲의 집이 깊다. 밤늦도록 구경하니 맑은 것이 생각에 들어와, 머리 기울이며 가느다랗게 읊조림이 나옴을 금하지 못하네”.

13 제주대학교 박물관, 2000, 『水精寺址』.

14 김정, 1521, 「도근천수정사중수권문(都近川水靜寺重修勸文)」, 『충암선생집(冲庵先生集)』; 김상헌, 1601, 「남사록(南槎錄)」; 濟州特別自治道·濟州文化院, 2016, 『國譯增補耽羅誌』, p.437.

15 전민숙, 2016, 「고려시대 청석탑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pp. 97~123.

16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元堂寺址」, 제주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고재원, 2006, 「옛 원당사지 발굴조사와 역사고고학적 의의」 『제주문화』 12, 제주문화원; 현문필, 2010, 「출토유물을 통한 元堂寺址의 조성시기와 성격 고찰」 『제주도연구』 33집, 제주학회.

5 「고려사」권 26, 世家 원종 7년 11월.

6 「태종실록」권 12, 태종 6년 7월 16일 계묘 조.

7 「신증동국여지승람」권 38 제주목 佛宇條, “법화암 가에 풍경이 그윽하니, 대를 끌고 술을 취두르며 홀로 스스로 노니네. 만일 세상 사이에 항상 머무는 모양을 묻는다면, 배꽃은 어지럽게 떨어지고 물은 달아나 흐르네”.

8 「신증동국여지승람」권 37, 전라도 강진현; 高昌錫, 2007, 「濟州島內 寺刹의 創建時期에 대한 管見」 『濟州歷史研究』, pp. 170~172.

9 윤봉택, 2006, 「13세기 濟州 妙蓮社板「金光明經文句」의 事實 照明-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29, pp. 193~230; 남권희, 2001,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8.

10 「金光明經文句」T, vol.39, no.1785; 「금광명경」은 4세기 북인도에서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북량시기 담무칭(曇無讖, 385~433)에 의한 4권의 한역이 있고, 고려대에는 당대 의정의 번역본인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이 널리 유통되었다.

불탑사 오층석탑은 단층기단 위에 올려졌다. 지대석이 1매이며 괴임이 없다. 기단 중석을 1매로 하여 후면을 제외한 삼면에 방형의 액을 만들고 안상을 조식하였는데, 안상 안에는 귀꽃이 표현되어 있다. 초층 탑신석 남면에 감실을 두었으며, 탑신 괴임과 우주, 층급받침이 없다. 탑신석은 사다리꼴이며 각층의 체감률은 미약하다. 옥개석의 상·하 처마선이 같이 들린다(사진 1).

이 탑은 조금 이채롭지만 선처리가 어려운 현무암의 질박한 성질에서 우주와 층급받침 등의 표현이 배제되고, 그 대신 안상, 귀꽃, 감실 등을 더하여 체화된 제주미술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지대석이 기단저석을 겸하고 탑신괴임과 탑신석에 우주가 없는 점, 초층 탑신에 감실이 있는 점 등은 고려 후기 탑에 보이는 표현 방식이



사진 1. 불탑사 오층석탑, 고려후기 14세기, 제주시 불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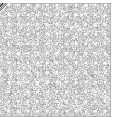
며,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과 봉화 운계리 폐탑이 유사하다(사진 2). 따라서 불탑사 오층석탑은 14세기 전반 경의 탑의 형태를 보여준다.

Ⅲ. 제주의 조선시대 불교유물

조선의 설립과 함께 중세를 지배했던 불교가 해체되고, 유교는 신유학의 형태로 현실세계의 독점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제주에서는 대종대에 법화사와 수정사의 280명, 130명의 노비를 각각 30명으로 줄여 규례에 따라 경작에 관한 전농시 관아로 옮겨 소속토록 하였다.¹⁷ 제주의 불교는 원나라 불교의 영향을 배제하고 무속에 적응된 상황으로 귀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선전기 유교가 제도적인 통제가



사진 2.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고려후기, 325cm, 충북 괴산군



능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불교와 무속이 유교의례의 공백을 메웠다.¹⁸

불교의 자취가 낫설지 않은 유자(儒者)들은 제주의 사찰을 탐방하였다. 조선중기 시인이자 문신인 임제는 제주목사인 아버지를 찾아와 여행하며 제주의 경승과 유래를 적은 『남명소승(南溟小乘)』(1577년)을 저술하였다. 임제는 승려들이 수행하는 산방굴사에 들렀으며 존자암에서는 청순(淸淳)스님을 만나 두타사, 쌍계암을 거쳐 내려왔다.¹⁹ 1653년에 제주목사를 지낸 이원진(李元鎭, 1594~1655)은 읍지인 『탐라지』에 산방굴사를 비롯한 명승 기록과 자신의 시를 실었다. 조선시대 제주의 사찰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증보)에 의하면 앞서 본 고려시대 사찰 이외에 월계사, 문수암, 만수사(萬壽寺), 해륜사(海輪寺), 소림사, 영천사, 성불암 등이 더 보인다.

그런데 현실적인 유학자들은 제주 불교의 또 다른 실상을 전한다. 김정(沖庵 金淨, 1486~1521)이 제주 유배 중에 쓴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는 조선시대 제주불교가 '불도(佛道)에 기울어져 있음에도 고승이 없고 무당이나 박수가 끼치는 폐단이 크다'고 적었다.²⁰ 제주목사 이형상(1653~1733)이 쓴 제주박물지인 『南甯博物』은 제주에 사찰터는 많으나 제대로의 사찰, 불상, 승니가 없고, 신당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제주성의 동·서 만수사와 해륜사에 대해 승려 없이 마을에서 명절에 모여 불상에 예불하므로 절을 할여 관가의 건물을 짓도록 하였음을 치적으로 기록하였다.²¹ 조선후기 제주는 출륙금지령으로 통제되었으며 사찰

의 유지가 힘겨워 보인다. 18세기 후반 읍지인 『증보탐라지』를 보건대 사찰이 버려지는 것은 목사들이 엄금해서만이 아니라 승려로 사는 것이 어려워 절도 모두 훼손되고 승려도 없다고 적었다.²²

1. 존자암지 세존리탑

존자암은 제주 불교 초전지로 알려진 고적(古蹟)이다. 승려가 수행하는 형상의 돌에 의해 수행동(修行洞)이라고도 하는데, 존자암은 16세기에 쇠락과 중창을 거듭하고 17세기 전반 경 한라산 영실에서 서쪽기슭을 벗어나 대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존자암지 세존사리탑은 간략한 형태로 지대석-기단석-탑신석-옥개석(보주 포함)이 차례로 올려졌다. 탑신석은 타원형에 가까우며 명문이 없다. 옥개석은 처마가 두껍고 보주와는 한 돌이다(사진 3).

1651년에 제주안핵어사로 파견되었던 이경억(李慶億)이 옛 존자암의 허물어져 쓸쓸한 터에 오래되어 보이는 탑 하나가 있다고 적었지만,²³ 18세기 말 『증보탐라지』는 조금 달리 묘사한다.

옛터에는 불상 한 구와 섬돌, 기와 조각이 지금도 남아 있다. 그 곁에는 돌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뚜껑이 흔들거리는 하지만 열려고 하면 불가능하였다. 사람이 그 곁에서 시끄럽게 하면 조각구름들이 항아리 속에서 나와 삼시간에 모든 봉우리를 뒤덮고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니,

18 최종성, 2007,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反혼합주의-유교, 불교, 무속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47, pp. 37~81.

19 한편 산방굴사는 고려 해일의 수행처였으며 이에 대한 해일의 시가 있다. “선달이 다 가는 매화언덕의 연 가지에 홀연 봄이 찾아와 싸늘한 향 비록 사랑스럽지만 외진 곳을 찾는 사람은 적네”(『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8 제주목 佛宇條).

20 김정,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충암집(冲庵集)』, 홍정균 역,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론」, pp. 95~96.

21 이형상, 이상규 · 오창명 역주, 2009, 『남한박물』, 푸른역사, pp. 113~121.

22 『增補耽羅誌』 第三 佛宇, 『國譯增補耽羅誌』 第三 佛宇, 2016, p.443.

2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38 제주목 佛宇條, “존자암이 유명한 절인 줄로 알았더니 쓸쓸하고 거의 허물어진 옛 터이구나. 천년 세월의 외로운 탑이 있고 하나의 방과 서가래만 남아있네”.



사진 3. 존자암지세존사리탑, 조선, 1.9m, 제주 서귀포시 존자암 (사진 문화재청)

대정현 사람이 놀러온 손님들이 장난하는 폐단을 꾀로워하여 연못으로 묻어 버렸다고 한다.²⁴

위의 내용을 보면 그 돌항아리가 1993년 발굴조사에서 도괴된 상태로 발견되어 지금과 같이 복원된 사리탑으로 보인다. 이러한 존자암 세존사리탑은 어떤 점에서 석가사리를 상징적으로 봉안한 보은 범주사 세존사리탑을 상기시킨다. 범주사 세존사리탑은 공민왕 11년(1362)경 통도사 금강계단(戒壇)의 사리 1과를 옮기면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존자암지 사리탑은 그 간략한 구성에서 시대를 내려 불요소가 있다. 문화재 지정 당시는 고려 말 조선 초의 사리

탑이라고 하였으나 합천 사명대사 부도(1610년), 완주 봉서사 진묵대사 부도(1633년)과 비교하면 특히 기단부가 간소하고 옥개석이 두꺼운 특징이 유사하여 17세기 전반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⁵

2. 만수사와 해륜사의 동·서 자복미륵

만수사와 해륜사 위치에 해당하는 제주성의 동·서 포구 어귀에 미륵상이 있다. 각각 동·서 자복미륵으로 불리며 야외에 놓여 있다.²⁶ 실제 자복사(資福寺)는 고려 때에 나라의 복을 빌고 지역공동체적 의례를 담당하기 위해 지정한 사찰이다. 고려 말 원 간섭기를 거쳐 향촌지배층이 분화



사진 4. 1930년대 자복미륵, 송석하 사진, 6.2X8.3cm,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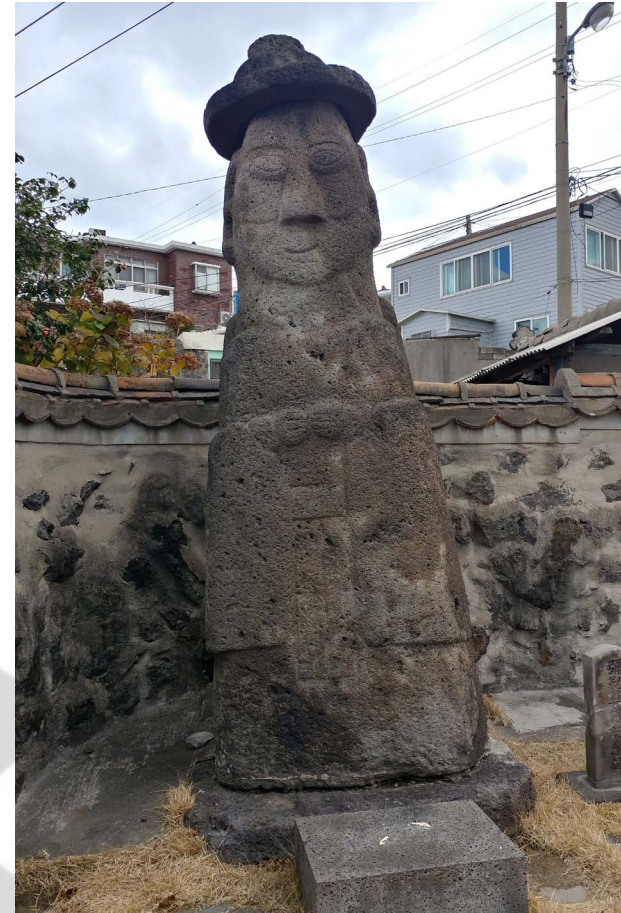


사진 5. 동자복, 조선, 2.86m, 제주시

되면서 축소되고 조선조에 와서 소멸되었다.²⁷ 이 동·서 자복미륵은 불상 고유의 특징을 잘 갖추지 않았으나, 다른 이름으로 복신미륵, 자복신, 돌미륵, 미륵부처 등으로 부르면서 개인의 안녕과 해상의 안전을 기원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조성 시기는 15세기 후반으로 보기도 한다.²⁸

동·서 자복미륵은 어깨가 좁은 기둥형태에 둥근 모자와 소매 넓은 관복을 입고 두 손은 가슴 앞에서 맞대고 있다(사진 4~6). 큰 얼굴에 눈이 튀어나와 사망을 살피는 듯 하고 삼각형 코, 입 꼬리가 올라간 작은 입, 살짝 패인



사진 6. 서자복, 조선, 2.73m, 제주시

광대광대뼈가 표현되었다. 동자복의 귀는 3자형으로 늘여지고, 서자복의 귀는 기다란 C자를 이룬다. 서로 유사한 형태이면서도 동자복이 더 사실적이다. 동자복의 복식은 아래쪽이 넓게 퍼지면서 소매부리 안쪽으로 겹쳐 입은 좁은 소매 옷이 보인다. 허리는 옷감으로 만든 대대를 묶어 늘어뜨렸으며 포에 덮인 발은 생략되었다. 서자복은 목과 하체가 짧고 간단한 모양새이다. 동자복의 좌측에 1953년에 세워진 미륵존불기념비가 있다.²⁹

24 『增補耽羅誌』第三 佛宇 尊者庵; 濟州特別自治道·濟州文化院, 『國譯增補耽羅誌』, 2016, pp. 428~429; 尊者庵. 舊在漢拏山瀛室.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謬傳修行洞. 今移西麓外十里許 卽大靜境也. 補. 佛像一軀與階石瓦礫至今留在. 其傍有石釜 其蓋撓動而欲開不能. 人喧其傍則片雲起於釜間 斯須之間 霧盡千岑 興雲作雨. 縣人苦其遊客之弊 推下沒池云.

25 존자암 사리탑을 17세기로 보는 견해는 더 있다. 엄기표, 2017, 「제주지역 佛敎 石造美術의 특징과 의의」, 『耽羅文化』 54, p.158;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2003,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도』, p.495.

26 『新增東國輿地勝覽』권 38 濟州牧 佛宇; “海輪寺 一名西資福在州西獨浦口 萬壽寺 一名東資福在巾入浦東岸 觀音寺 在朝天館浦”.

27 한기문, 2015, 「고려시대 州縣 資福寺와 香徒의 역할」, 『동국사학』 59.

28 정성권, 2017, 「조선전기 석조불상 연구」, 『불교미술사학』 24, p.199.

29 한국고전번역원에 자문한 기념비의 해독을 그대로 옮긴다. 日惟尊像 날마다 미륵상을 우러르노니/ 南朝巨立 南朝에 크게 서있도다/ 廣大無私 넓고 크고 사사로움이 없어/ 時垂陰騰 때때로 복덕을 내려주도다/ 然而廢止 그러나 폐지된 지가/ 至三千載 삼천년이나 되었도다/ 今○○壇 미상/ 地天○泰 미상/ 檀紀 四二八六年 四月十一日 鄭時彦 謹書 단기사이팔육년 사월십일일 정시언 근서 (*南朝: 미상. 아마도 제주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자복미륵의 모자는 이른바 원정모의 조형에 바탕을 두었으며, 머리에 턱을 두지 않고 약간의 틈을 두어 썼다. 이조년(1269~1343) 초상의 관모가 바로 원정모이다(사진 7). 고려 말 원나라의 영향으로 고려복식에 변화가 일어났고, 복식사에서 원정모는 13~14세기 상류계층의 공식적인 쓰개 중의 하나로 왕을 비롯한 관리들이 공복(公服)에 복두(幘頭)를 대신하여 착용하였다. 원정모는 몽고식 발림(鉢笠) 혹은 원정립이라고도 하며 마루가 둥글고 채이 달려있으며 정수리에는 구슬장식이 있다. 조선 초기까지 착용된 원정모는 이후 승려들의 복제에서 승립으로 계승되었다. 초상화의 전통에 의해 이조년의 초상은 거의 원형을 유지하며, 자복미륵과 이조년초상은 원정모와 허리의 대대에서 내려오는 두 줄 띠, 소매 안쪽에 보이는 옷 등의 교차점에서 흥미롭다.



사진 7. 이조년화상, 1746년, 154.5×156.0cm (국사편찬위원회 유리필름자료)

한편 자복미륵의 또 다른 형식은 석인상형 미륵 및 신장상형 미륵의 형태를 적극 허용한 점이다. 먼저, 석인상형 미륵은 마을 입구 좌우에 위치하여 비보와 풍수의 역할을 하며 그 예가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이다(사진 8). 신체는 사다리꼴의 돌기둥과 같은데 두 손을 배 앞으로 모으고 있으며 분묘 앞에 세워진 석인상을 연상케 한다. 머리에는 사각형 보개를 썼으며 보개의 정상부는 둥글게 솟아있다. 눈매는 가느다랗고 입술에 웃음기가 배어있다. 제주 자복미륵 역시 두 손을 배 앞에서 수평으로 마주하고 동서에 놓여 있다. 또한 자복미륵의 튀어나온 눈은 신장상형식의 석장승과 교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호위하는 역할로서 남원 호기리 석장승, 곡성 가곡리 석장승 등이 있다. 이는 김제 금산사 방등계단 주변에 시립하고 있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추가된 것으로 보는 신장상 등과 유사한 이미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사진 9).

조선시대 미륵의 모습을 유형화하는 것에 충분한 담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복미륵은 미륵의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형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유학자의 여러 기록에서 무덤 앞에 세운 석상, 길가에 세운 석장승, 풍수상의 목적으로 세운 석상 등을 종종 옹중석(翁仲石)이라고 불렀고 옹중은 진시황때의 장수로 성문을 지키는 석상의 명칭에서 유래한다.³⁰ 돌하르방 역시 김석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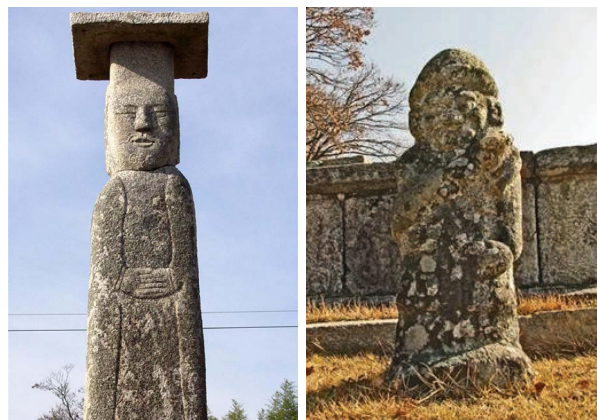


사진 8.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서), 사진 9. 김제 금산사 방등계단 신장상
고려말, 4.24m, 전북 익산시



(心齋 金錫翼, 1885~1956)의 『탐라기년』에 1754년경 목사 김몽규가 성문 밖에 세운 옹중석이라고 하였다.³¹

옹중이 석상을 대신한 명칭이지만, 박순(朴淳, 1523년~1589년)의 『사암집』에 실린 칠언고시인 〈노상석옹중(路上石翁仲)〉은 이미 이러한 상이 지역성을 가지고 세속화되고 혼혈되어 미륵으로 불리는 점을 보여준다.³²

아마도 왕년에는 묘 앞에 있던 물건일 텐데 세속에서 와전되어 미륵이라 부른다. 지나가는 행인들 각자가 소원을 빌고 짧으며 비단이며 자른 말갈기 등을 바친다.

이상으로 보면 자복미륵은 조선시대 민간신앙화된 미륵상의 주요 유형이 합성되어 있다. 기계적인 복제가 아닌 점에서 원형에 대한 인식을 암시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복미륵의 특징을 불교문화의 맥락에서 찾고자 한다.

IV. 제주화된 미륵, 자복미륵

만수사와 해륜사의 동서 자복미륵에 관하여 특기할만한 불상이 바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명립상이다. 두 상이 나란하여 하나는 연꽃가지를 들면서 원형보개를 착용한 상, 다른 하나는 합장을 하고 방형 보개를 올린 상이 함께 있다(사진 10). 이 상의 좌측 바위와 몸체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발원문 분석 이전에는 고려중기의 불상으로 보았으나, 조선시대 성종 2년(1471년)에 세조 사후 예종과 성종의 섭정으로 당대 권력의 핵심이었던 정희왕후, 권력 창출의 막역한 동지이자 두 딸을 예종비와 성종비로 만들었던 한명회, 그리

고 세조의 사촌 종실 함양군, 세조의 외숙 심장기 등의 세조 측근들이 정치적, 정서적 이해관계 속에서 만든 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³³

발원의 내용은 서방극락정토에 가서 깨우침을 얻은 후 하생하여 미륵윤회삼회에서 부처의 바른 교법을 듣고자 하였다. 불상 하단에는 전패(殿牌)와 같은 명문이 있다. 원형보개를 한 불상에는 세조가 하생미륵의 정토인 이 세계에 재생하기를(當來彌勒如來大聖 世祖大王往生淨土) 바라고, 방형보개를 착용한 상에는 단명 하는 왕실의 우려를 담아 성종의 만수를 축원하였다(主上殿下壽○○).

최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명립상의 조선시대 조성설과 관련되는 강희맹(1424~1483)의 시 〈과혜음석불하기사(過慧音石佛下記事)〉가 분석되었다.³⁴ 용미리 이불명립상은 혜음원에서 멀지 않으며 혜음원은 고려대에 임금이 개경 방향으로 행차하면 머물던 기관이다. 이 시는 불상의 조선시대 조성시기와 종실 함양군(1416~1474)이 불상의 주요 시주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천연으로 바위가 길가에 서있는데 …… 만고에 우뚝 높은 언덕에 임하였네. 누가 깎고 새겨 쌍 부처를 만들었는가 먼목이 흡사 부처를 닮았구나 …… 마부가 가면서 하는 말이 이 돌의 괴상한 것이 참 황당합니다. 부처를 새겨 만들어 복리를 구할 제 종실 함양군의 꿈에 감응했고,³⁵ 중들의 화원으로 재물을 시주 받아 모여든 사중들이 떠들썩 하였읍조. 당시의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천명 인부 가진 맥진 일만 소가 넘어졌조. …… 그때부터 앞마을 몇 백 집 이 반년 동안 피폐하여 모두 유리했네 …… 내 직책이 사관

31 김석익, 1918, 『탐라기년(耽羅紀年)』, 甲戌三十年 清乾隆十九年 牧使金夢奎設翁仲石於城門外.

32 박순, 『思菴集』, 路上石翁仲; 恐是往世墓前物 俗語轉訛稱彌勒 行旅祈禳各有求 人施米帛馬剪鬚.

33 이경화, 2005, 『坡州 龍尾里 磨崖二佛竝立像의 造成時期와 背景—成化7年造成說을 提起하며』, 『불교미술사학』 3, pp. 71~96.

34 정현성, 2016,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명립상의 조성 시기에 대한 소고—강희맹의 과혜음석불하기사 분석』, 『坡州研究』 10,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pp. 111~122.

35 함양군: 양녕대군의 둘째 아들. 세조의 동년배 사촌. 처는 용미리 불상 발원문에 나오는 태인군부인 이씨(『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1일 甲戌).

으로서 삼가 써 뒤야 할 터이나 내 몸이 삼장 아님을 깊이 부끄러워하네.³⁶

강희맹은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문장가이다. 사관 강희맹이 마부의 입을 빌어 불상 조성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강희맹 당대의 일이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파주 용미리 마에이불병립상의 원정모를 쓴 불상은 1471년에 세조의 사촌 종실 함양군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새로운 미륵의 모습이다.

원론적으로 미륵신앙은 간다라에서 2~3세기 중국에 전해졌으며 중국 불교의 정토유파들 중에서 최초였다. 미륵신앙에는 이중의 의식(儀式)이 있다. 한 가지 측면은, 충분한 공덕과 신념을 갖춘 사람들은 미륵이 인간세 계두말(鷄頭末, Ketumati)로 내려올 때까지 그와 함께 기다리기 위해 미륵보살과 더불어 도솔천에서 다시 태어나는 미륵상생신앙이다. 다른 한 가지는, 충실한 신자들은 미륵이 계두말을 관장할 때 그와 함께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받는 하생신앙이다.³⁷ 미륵삼부경은 미래에 하생하여 성불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미륵하생경』, 『미륵성불경』과 도솔천 상생을 자세히 서술하는 『미륵상생경』이다.³⁸ 석가 후계자로서의 미륵은 용화삼회(龍華三會)에서 설법을 한다. 미륵이 내세에 하생하여 성불하는 시기는 경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륵상생경』에 의하면 석가입멸 후 56억만년 후이다. 삼회의 설법은

『미륵대성불경』에 근거하면 석가가 설법한 사성제와 십이인연법이다. 『장아함경』 등에 의하면 미륵은 과거7불이 연속적으로 인간이 사는 염부제세간에 출현하는 것과 같이 미래세 전륜성왕 때에 염부제 세계에 하생한다. 그때 사람의 수명은 8만 4천세이며, 즐거움이 충만하고 사계절이 조화를 이루어 풍요롭고 삶은 거의 천상과도 같이 완벽하다. 미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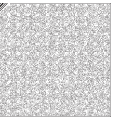


사진 10. 파주 용미리 마에이불병립상, 1471년, 18m, 경기 파주시

36 강희맹, 『속동문선』4권, 과혜음석불하기사(過慧音石佛下記事), “天生山骨立道傍 冥頑最願堅且剛 苔封鮮蝕潤不乾 萬古巋然臨高岡 何人斷鑿作雙佛 面目肖似瞿曇王 經營虛器竟何意 立馬我欲問共詳 馬前走卒行且言 此石驄怪誠荒唐 鑄成佛軀具福利 夢感貴戚卿咸陽 施財化緣仗繼徒 室會四衆仍張皇 當時所費不可計 千夫力盡萬牛僵 功成日夜行前應 佛力闊遠多微茫 從此前村數百家 半歲彫瘵俱流亡 愚氓始迷今始覺 何者地獄與天堂 移此力構逆旅 可置兩區臨康莊 庶使行旅免露宿 可庇暑雨沾繁霜 我聞此語發大笑 爾雖至微善思量 人生禍福儘如此 有心求利還招殃 職忝太史當謹書 深愧我身非三長”

37 John C. Huntington, 1984, 'The Iconography and Iconology of Maitreya Images in Gandhara', Journal of Central Asia, vol. VII:1, pp. 133~179.

38 가장 이른 시기의 중국어 번역은 동진시대(265~317) 역자 불명의 『佛說彌勒來時經』이다. 한국에 널리 알려진 미륵하생경은 303년 축법호의 『佛說彌勒下生經』(약칭 『미륵하생경』)과 402년 구마라집(Kumarajiva, 鳩摩羅什, 344~413)의 『佛說彌勒下生成佛經』(약칭 『미륵하생경』)이다. 『佛說彌勒大成佛經』(약칭 『미륵성불경』)의 한역 역시 402년 구마라집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역본으로 701년 의정 역 『佛說彌勒下生成佛經』(약칭 『미륵하생성불경』)이 있다.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약칭 『미륵상생경』)은 455년 저거경성(沮渠京聲)에 의해 한역 되었다.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약칭 『미륵상생경』)은 455년 저거경성(沮渠京聲)에 의해 한역 되었다.



하생하여 이루는 계두말 정토설은 미래의 희망과 이상향을 대변하는 일종의 황금시대의 기대와 유사하다.³⁹

그런데 원정모를 쓴 모습은 고의적으로 어떠한 표상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는 신진사대부의 정치적 승리로 건설되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신진사대부는 신유학의 형태로 새 세상을 꿈꾸었고, 개혁정치를 이끌었던 그들이 아직도 원정모를 착용하였음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미륵을 조선시대로 끌어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그들의 모습을 미륵의 이미지로 간주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은 앞으로 기대할 모습은 아니었고, 조카와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권력이 수구적으로 전임자와 닮은 모습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본다.

흥미롭게 불교조각사에서는 원정모 형태의 보개를 쓴 불·보살상이 조선전기 조각에 더 보인다. 조선전기의 민불형 미륵 가운데 원정모를 착용한 불상은 안성 국사암 석조 삼존불입상,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 옥천 대성사 석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원정모를 착용한 미륵불상은 파주 용미리



사진 11.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 조선전기, 2.2m, 경기 안성시 (사진 문화재청)



사진 12. 옥천 대성사 석불, 3.6m, 충북 옥천 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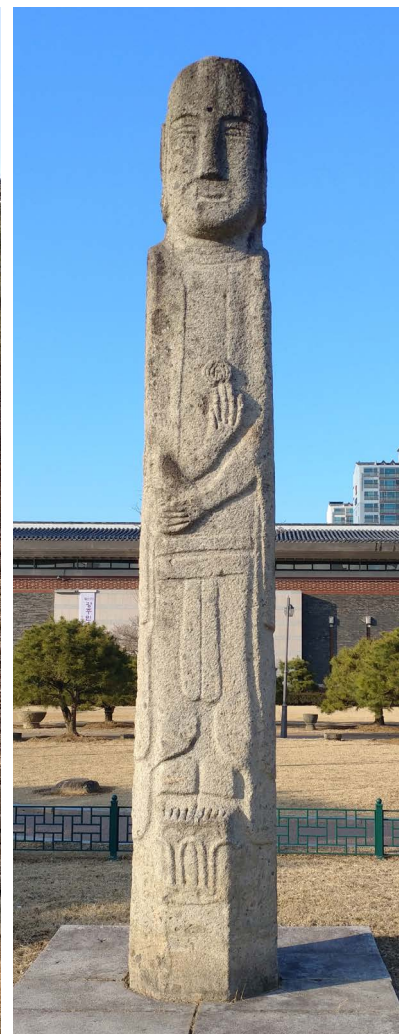


사진 13. 광주 십신사지 석불, 4.5m, 광주시립민속박물관

39 速水侑, 1971, 『彌勒信仰』, 評論社, pp. 15~16; Jan Nattier, 1988, 'The Meanings of the Maitreya Myth' in Maitreya, the Future Buddha, edited by Alan Sponberg & Helen Hardacre(Cambridge University), pp. 33~35.

마애이불병립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안성 대룡리 석불입상은 조선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마을의 수호신격 미륵이다(사진 11). 원정모형 보개를 썼으며, 두상은 크고 둥근 편이다. 신체는 굴곡을 드러내지 않은 기둥형태이며 배 앞에서 정병을 받쳐 들고 있다. 정병은 관음보살의 지물이지만 간다라나 중국의 고대 불상일수록 미륵보살이 정병을 들고 보관에 화불을 새겼다.

독특한 불상으로 옥천 대성사 석불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륵불상으로 불리며 원정모를 착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사진 12).⁴⁰ 방형의 기둥 형태에 상반신과 하반신을 별석으로 올렸다. 상당히 특이하게, 백호는 있으나 무감각하게 열린 눈, 팔자주름이 짙은 노안, 사다리처럼 긴 다리, 옷과 지물의 모호한 기호 같은 표현이 신성함과 무관하여 보인다. 컷구멍과 얼굴사이 그리고 컷불과 오른손에도 작은 구멍이 있다. 오른손을 접어 올려 무엇을 끼울 구멍을 두었다. 아마도 철제 연꽃가지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옷주름은 얇은 선각이며 허리에는 삼산형 문양이 있다. 이 상은 불상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지만 일자 귀와 원정모를 쓴 불상의 뒷모습이 파주 용미리 이불병립상과 시대 차이가 그리 멀지 않게 연결되어 보인다.

흡사 어떤 인물상의 사실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이 상은 『옥천육씨대동보』에 의하면 육금손(1431~?)이 후손의 장수를 위해 미륵불을 조성하였다는 상이다.⁴¹ 그런데 육금손은 1505~1506년 제주목사를 역임한 육한(陸閑, 1451~1530)의 아버지이다. 육한은 성종대의 무인이며 탐관오리로 밝혀져 1507년에 제주목사에서 파직되고 장형 및 유배형을 받았다.⁴² 이 상은 육한이 제주목사 이전에 아버지 육금손과 함께 옥천에 머물 때 조성한 것이라는 문종의

의견에 따라 실록을 살펴보면, 육한의 낙향시기와 부자(父子)의 생몰년을 고려하여 1491년경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성사는 육씨 집성촌인 충북 옥천 청성면 문수산 아래 은천동에 위치한다. 집안 원찰격의 사찰이며 육한의 묘지는 이 불상과 겨우 150m의 지근거리이다.

한편 광주 십신사지 석불은 자복미륵의 복식과 유사하고 다소 고려의 모습에서 대성사 석불의 형태를 이해하게 한다. 불상은 8각의 돌기둥 형태에 새겼으며 백호와 삼도, 연꽃대좌를 갖추었다. 오른손은 가슴 앞에 대고 보주와 같은 지물을 들었다. 복식은 배에 대대를 둘러 아래로 두개의 줄이 늘어지는데 자복미륵의 복식과 유사하여 흥미롭다(사진 13). 이 상은 대항사지에서 십신사지로 옮겨왔다고 하며 머리에는 30cm 가량의 구멍이 있어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병립상,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과 같이 보관을 쓴 고려말 조선초의 보살상으로 추정하였다.⁴³ 보관은 상의 형태상 원정모형 보개가 더 어울려 보인다. 곧 광주 십신사지 석불은 자복미륵, 대성사 석불 등과 표현방식에서 관련이 있는 조선전기의 상이다(사진 14).

요약하면 자복미륵은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병립상(1471년), 옥천 대성사 석불(1491년 추정), 광주 십신사지 석불의 형태와 연결되었다. 주요한 특징인 원정모를 쓴 모습은 어떠한 표상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는 신진사대부의 정치적 승리로 건설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킨 그들의 모습이 원정모를 쓴 조선시대 미륵불로 용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교롭게 옥천 대성사 석불은 제주목사를 역임한 육한 당대에 만들어진 상으로 추정된다. 곧 이들 불상의 지역에 따른 변형에도 불구하고 자복미륵을 통해 연결고리가 확인된다.

40 옥천 대성사 석불입상에 대해서는 부산 민학기 선생님의 소개와 조연이 있었다.

41 『沃川陸氏大同譜』卷之一; 禦侮將軍行副司果銀川洞銀川庵後孫長生彌勒入佛(*入: 立).

42 『중종실록』2년 정묘(1507) 5월 25일.

43 최몽룡, 1978, 「光州 十信寺址 梵字碑 및 石佛移轉始末」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p.134; 전남관광자원, 1966, p.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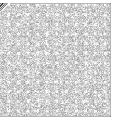


사진 14. 주요 불상의 세부. (A) 제주 동자복, (B) 십신사지 불상, (C) 대성사 불상, (D) 용미리 불상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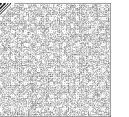
제주 불교미술에 대한 관심은 한국미술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편이다. 이 글은 제주 불교미술에 대해 양식적인 접근을 하였으며, 그 가운데 자복미륵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을 구체적으로 시도하였다.

제주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불교유물은 거의 고려를 지나면서 확인된다. 고대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으나 크게 발전하지 않은 반증이거나 무속이 강한 관습 탓으로 보인다. 제주는 고려 후기에 불교문화가 흥기하고 유물이 집중적으로 남아있다. 법화사는 원 황실의 원찰이자 고려의 비보사찰이었다. 묘연사는 고려 조정에서 내린 불전을 받들어 1296년에 『금광명경문구』의 제주도판을 다시 새겨 제주의 중요한 지식문화 일면을 시사한다. 수정사 청석탑 부재에 새겨진 금강역사상은 고려후기의 회화로 주목된다. 불탑사 오층석탑은 제주 현무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제주미술로 체화된 14세기 전반경의 탑이다.

조선시대 제주의 불교는 원·명교체기에 몽골 목호의 난이 정리되면서 원나라불교의 영향이 배제되고 무속과 섞인 제주불교의 모습으로 귀환되는 것 같다. 제주의 독특한 모습인 자복미륵은 조선시대 민간신앙화된 미륵의 세 가지 유형을 합성하였다. 원정모와 관복을 착용한 미륵상이며, 좌우에 놓여 지역을 살펴 지키는 석인상형 미륵, 튀어나온 눈으로 호위하는 역사(力士)인 신장상형 미륵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자복미륵은 그러한 미륵의 유형을 분석하는 데에 의미 있는 형식을 보인다.

자복미륵은 1471년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병립상, 옥천 대성사 석불(1491년경), 광주 십신사지 석불 등과 세부특징을 공유한다. 이들은 원정모를 착용하거나 기둥형태로 표현되었다. 원정모형 보개를 지닌 불상은 조선전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미륵을 조선으로 끌어들이며, 조선을 건설한 신진사대부의 모습에 기인하여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공교롭게 옥천 대성사 석불의 조성에 제주목사를 역임하는 육한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간략한 글에서 검토한 제주의 불교미술은 한국불교 미술과 맥락을 같이 하거나 도입된 후 변형된 것들도 포함 하여 다양하다. 주로 고려후기 역사에서 불교 실천의 움직임과 함께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조선시대 자복 미륵은 민간신앙화된 미륵의 세 유형을 반영하여 독특하다. 자복미륵은 그러한 불상들의 지역에 따른 변형에도 불구하고 연결고리를 확인하여 주었다.



참고문헌

- 고명수, 2014, 「몽골의 '복속' 인식과 蒙麗관계」 『한국사학보』 5
- 고창석, 2017, 『濟州歷史研究』, 도서출판 세림
- 김일우, 2000,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신서원
- 김정선, 2008, 「翁仲石 :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耽羅文化』 33
- 남권희, 2001,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8
- 문화재청 · 대한불교조계종, 2003,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 · 제주도」
- 문화재청 · 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韓國의 寺址」
- 배연이, 2015,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 고찰」, 경주대학교 석사논문
- 사찰문화연구원, 2006, 「전통사찰총서-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21
- 엄기표, 2017, 「제주지역 佛教 石造美術의 특징과 의의」 『탐라문화』 54
- 윤봉택, 2006, 「13세기 제주 묘연사판 『금광명경문구』의 사실 조명-순천송광사사고려판천순판불전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29
- 이경화, 2005, 「坡州 龍尾里 磨崖二佛竝立像의 造成時期와 背景-成化7年造成說을 提起하며」 『불교미술사학』 3
- 이형상, 이상규 · 오창명 역주, 2009, 『남한박물』, 푸른역사
- 정성권, 2017, 「조선전기 석조불상 연구」 『불교미술사학』 24
- 정현성, 2016,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병립상의 조성 시기에 대한 소고-강희맹의 과해음석불하기사 분석」 『坡州研究』 10,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조영록, 2011, 「濟州 法華寺 三尊佛의 南京 移置와 滿空의 入明 傳法」 『明清史研究』 35, 明清史學會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문화원, 2016, 「國譯 增補耽羅誌」
- 최종성, 2007,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反혼합주의-유교, 불교, 무속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47
- 한기문, 2015, 「고려시대 州縣 資福寺와 香徒의 역할」 『동국사학』 59



A study of Jeju Buddhist art and Bok-sin Maitreyas

Lee, Kyung-Hwa
Cultural Heritage Appraisers Offic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orresponding Author : ddaccii@hanmail.ne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Buddhist art in Jeju which has rarely been in the mainstream discussions about the Korean art by focusing on the statues of Jabok Mireuk, or Maitreya of Wealth and Fortune.

The Buddhist art in Jeju reached its heyday during the late phase of the Goryeo period (918-1392). The imperial court of Yuan (1271-1368) established Beophwasa, one of its guardian temples which was also a “complementary temple” of Goryeo (918-1392). In 1296, the community of monks based in Myoryeonsa Temple published the Jeju edition of the Buddhist canon granted by the royal court of Goryeo, contributing to the foundation of the island’s academic culture. Other items representing the heyday of the Buddhist art of Jeju include the Vajra Guardian carved on the greenschist pagoda of Sujeongsa Temple built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and the Five-story Stone Pagoda of Bultapsa Temple made from the locally obtained basalt rock during the early 14th century.

The Buddhist art of Jeju during the Joseon period (1392-1910) is represented by Jabok Mireuk, or Maitreya of Wealth and Fortune, a pair of stone statues of Maitreya Buddha carved to feature three aspects of the Maitreya worship spread among the local folks in the period. Each of the statues is in a peaked cap and official’s robe and characterized by bulging eyes comparable to those of the Buddhist guardian deities such as the Vajra guardian who were designed to protect a sacred area against evil forces. The Maitreya statues provide valuable sources of knowledge about the types of Maitreya adopted by the worshippers of local folk religion in the Joseon period.

The Jabok Mireuk statues in Jeju can be easily compared with the Two Rock-carved Standing Buddhas in Yongmi-ri, Paju (1471), and the two standing stone Buddhas in Daeseongsa Temple in Okcheon (ca 1491) and on the Sipsinsa Temple site in Gwangju in that they all wear peaked caps in the “treasure canopy” style which gained popularity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One may conclude then that these statues are related with the Neo-Confucian elites who wanted the Joseon dynasty they established to prosper under the auspices of the Buddha of the Future. Interestingly, the enshrinement of the stone Buddha of Daeseongsa Temple is presumed to have been participated by Yuk Han who had served as the Governor (Moksa) of Jeju, suggesting its connection with the Jabok Mireuk despite the regional difference in their style.

Keywords Jeju Buddhist art, Ja-Bok, Bok-sin Maitreya statues, Paju Yongmiri statues, Okcheon Daeseongsa Buddhist statue
Received 2018. 06. 30 • **Revised** 2018. 08. 10 • **Accepted** 2018. 09. 11